

원貨 換率 切上과 對應方案

李 相 晔

韓國銀行 調査第1部 國際收支課長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급속한 원화절상에 대하여 기업체에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기초로 가격경쟁 의존 수출방식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등의 산업구조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정부보호하의 성장방식에서 탈피, 자유시장경쟁을 통한 기업 스스로의 자생력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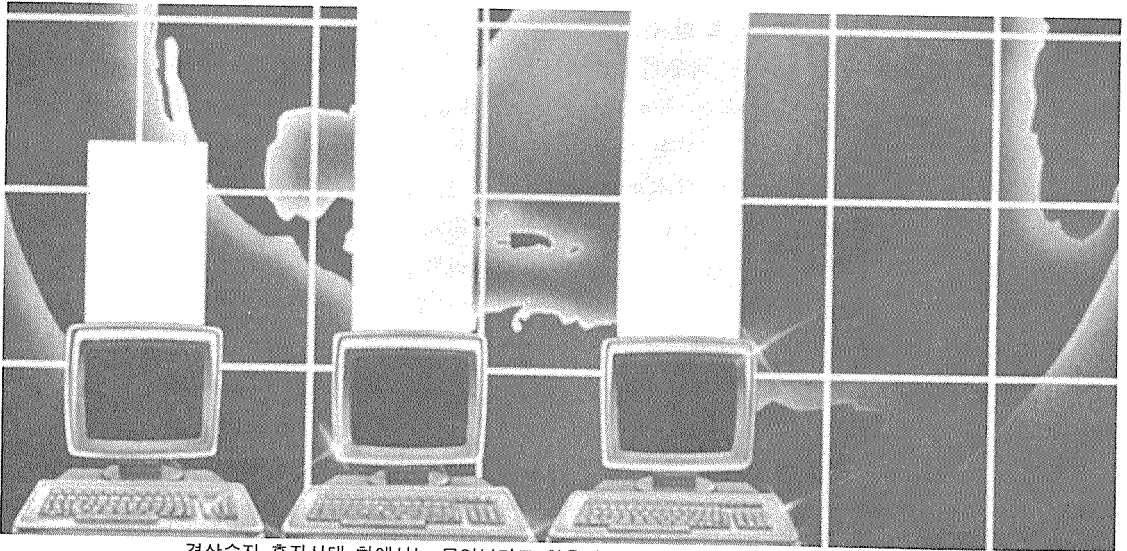
I. 머리말

1986年 46.2億달러, 1987年 97.8億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만성적인 赤字基調에서 벗어났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금년 1~2月中에도 黒字규모가 17억달러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黒字幅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4位의 외채국이라는 별명아닌 별명이 人口 膾炙하였던 우리나라로는 國際收支가 이처럼 흑자기조를 지속한다는 것이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外國으로부터의 거센 通商摩擦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과거에는 몇몇 특정 품목에 대한 輸入規制로 야기되었던 통상마찰이 1986年以後부터는 美國 등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外換 및 資本市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對外開放壓力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개방압력은 혜택을 받는 것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相互互惠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수지 흑자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벅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先進國과의 통상마찰이 우리나라 경제에 무차별적 효과를 가져오는 換率切上幅에까지 擴大되고 있다는 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換率切上 問題는 우리나라에서만 거론된 것이 아니고 日本 및 서독 등 선진국들간에도 이미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즉 1985年 9月 先進 5個國 정상회담이후 1987年 末까지 日本 元貨 및 서독 마르크貨는 美 달러貨에 대해 49.0% 및 44.7%가 각각 切上되었는데, 이와 같은 달러가치의急落은 美 달러貨가 자국의 經濟力에 비해 지나치게 高平價되는 등 그동안 크게 왜곡되었던 국제 通貨時勢의 재정립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美國의 입김



경상수지 흑자시대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절상에 대비하는 것이 적자생존의 근본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先進國 通貨에 대한 美 달러貨의 急落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貿易収支赤字가 예상했던 것만큼 개선되지 않자 그 화살은 한국, 대만 등 최근 들어 경상수지흑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NICS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즉 미국의 무역수지는 美달러貨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赤字幅이 1985년의 1,485億달러에서 1987년에 1,712億달러로 확대되자 이는 日本 및 서독 등 선진국보다 환율절상폭이 작은 대만 및 한국 등 NICS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이에 따라 美國企業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어 문제로 보고 있다. 台灣은 이미 1986년에 10.9%, 그리고 1987년에는 19.6%의 비교적 높은 切上을 단행하였으나 經常収支 黒字가 더욱 확대되어 美國 등 선진국으로부터 추가적인 切上 壓力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원貨 換率의 움직임도 國內外的으로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II. 主要國의 換率 實態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貨 換率은 1985년 9월의 G-5합의이후 꾸준히 절상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1986年末 달러당 861원 40전(韓銀集中基準率)에 이르러 G-5회의 직전일인 1985년 9월 20일 대비 3.5% 切上되었으며 1987년에 들어서는 換率切上幅이 더욱 확대되면서 1987年末에는 달러당 792원 30전에 이르러 1986年末 대비 8.0%가 절상되었다.

그러나 1986~87年中 이와 같은 원貨換率의 切上추세는 日本 및 서독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경쟁상대국가 중의 하나인 대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 사실이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對美 무역수지흑자를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환율절상속도가 크게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切上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흑자를 지속해 온 日本이나 1970년대 초반부터 흑자를 지속해 온 대만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여 왔으나 사실 美國은 이제 한국경제를 기술집약적인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현대화를 들어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1986년 이후 우리나라가 컬러TV, VTR,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호조를 보이자 경제의 눈초리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많아졌으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유세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예를 들어 한국의 시장개방 부진을 공격하는 등 이제는 한국을 원조대상국가로 보지 않고 제 2의 日本과 같은 경쟁상대국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美国의 경제심 고조는 우리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접근하기 용이한 미국시장에 치중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전략을 세워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기업체들끼리 경쟁적으로 對美시장 진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美시장 편향적 수출전략은 1987년중 對美 貿易黒字幅이 100억달러에 이르게 하는 등 최근 對美 貿易黒字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地域別 貿易이 特定 國家에 대해 편중되어 지나치게 黒字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즉 貿易黒字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에 대해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는 것도 되지만, 제재시 상대국에 의해 상처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年間 10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의 輸出을 더 많이 하는 국가가 상대국가의 요구를 등한시할 때 받는 충격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美国 등 선진국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며 通商摩擦을 효과적으로 수습하는가 하는 것이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는 원貨 절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4월 1일 현재 원貨는 달러당 746원20전으로 불과 약 3개월만에 '87年末 대비 5.9% 절상되었다. 반면 일본 엔貨 및 대만달러貨는 美달러貨에 대해 오히려 3.3% 및 0.3%의 절하를 보이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換率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

G-5 합의 이후 日本의 輸出業체들 중에서는 엔貨의 對美달러換率이 1달러당 190엔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이 不可能해지고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는 성급한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엔貨의 對美달러換率은 그 당시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인 1달러당 120엔대까지 下落하였다.

算述개념으로 평가하여 보더라도 엔貨의 對美달러換率은 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50%에 가까운 切上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히 기록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급속한 通貨切上 가운데서도 日本 輸出業者들은 그들 자신이 환율절상폭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에 대한 적응도 예상밖으로 빨랐다. 일전에 한국을 방문한 日本의 中央銀行직원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日本사람들 스스로가 일본기업의 경우 현재 1달러당 120엔대의 換率수준에 적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견해를 들었을 때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그들에게 밀려왔던 「엔高」의 시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울인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원가절감 노력, 새로운 기술개발, 경쟁력 열위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移轉 등으로 대처하였으며 그 결과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Ⅲ. 対応 方案

위에서 살펴본 日本의 경우를 거울삼아 이제 우리나라도 換率切上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一國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변화면 환율은 切上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경제원리이다. 이와 같은 경제원리를 거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마련이고 희생을 치른 후에 대비하는 것은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經常収支 黒字時代하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절상에 대비하는 것이 적자생존법칙의 근본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향간의 신문에서는 對美달러換率이 조만간 700원대를 넘어 600원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經常収支 흑자추이가 어느 선에서 귀착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경상수지흑자가 지속하는 한 환율은 經濟的 fundamental로 평가했을 때 절상되는 것이 一般的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막상 부닥치고 보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첫째, 기업은 경상경비절감, 경영개선, 생산공정 합리화 등을 통하여 原價節減을 시도함으로써 輸出價格引上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신상품개발 및 신시장개척 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목표가 이제까지의 양적팽창에서 高附加價值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즉 低價, 대량生産의 수출방법에서 품질향상, 디자인의 고급화, 기능 다양화 및アフ터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통한 非價格 競爭力을 提高해야 한다.

세째, 輸出先을 미국시장 일변도에서 일본, EC 등 강세통화지역으로 다변화하여 輸出入의 지역별 偏重傾向을 시정해야 한다.

네째, 단기적으로 早期船積, 早期내고, 외상거래의 축소, 재고량의 감소(日本기업의 Zero 재고정책 참고), 결제통화의 強勢通貨化 등을 추진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장

기적으로 볼 때 財産성확보와 自社商標 輸出 확립 및 이미지 提高를 위해 OEM방식의 수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는 소재·부품 및 자본재의 國産化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國內 산업의 尙日依存탈피를 통한 尙日貿易逆調를 시정하고 輸入代替를 통해 환율이 절상하여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日本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이 素材-加工-組立이라는 3 단계과정이 하나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恩高의 부담을 상사 및 제품조립, 반제품, 부품소재, 원료공급업체가 골고루 분산 부담하여 기업자체의 충격 흡수 능력이 매우 컸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업체로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기초로 價格競争에 의존해 수출하던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부터 高附加價值 상품생산 등의 産業構造 轉換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화절상에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제까지의 정부보호하의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自由市場競争을 통해 기업 스스로 自生力을 키우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電子用語 略語表

NFS : Network File System
 RPC : Remote Procedure Call
 TCP/I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ZIP : Zigzag In-line Package
 ARPA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CGI : Computer Graphics Interface
 CGM : Computer Graphics Metafile
 EWS : Engineering Workstation
 GKS : Graphical Kernel System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NLS : Native Language Support
 PHIGS : Programmer's Hierarchical Interactive Graphics Standard
 RJE : Remote Job Entry
 Σ (SIGMA) : Software Industrialized Generator & Maintenance Aids
 SNA : Systems Network Architecture
 SVID : System V Interface Definition
 TSS : Time Sharing System